

●역사편찬자료 / 설교●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

본문 / 요 14
 세 22 ... 1
 20 ... 3



김 상 준 목사 설교

자료제공사 / 송기석목사

내가 임부에 있을 때 부모님이 계시는 부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편지를 드렸으나 허락의 편지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실망하여 임마를 지냈는데 어느날 오라는 편지를 받았읍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나의 안전(眼前)에는 부산의 거리가 펼쳐지며 가슴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읍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부산, 수일후면 또다어 보게 되었구나 아- 부산! 나의 부모님 계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는 부산, 그리운 동생이 있는 부산이여!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나는 준비되었으니 주님은 언제 오시든지 아무 걱정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법입니다. 신랑이 먼 곳에 기 있으면 어찌 사모하지 않으리오. 만일 신랑이 온다는 편지를 받고도 아무 때나 올테면 오시오 하든 태도로, 고대한다는 편지 한장 없으면 신랑이 얼마나 심심할까요! 신부가 있는 집에 어서 가야겠다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리 올 것도 더디오게 될 것이 아닙니까? 올바른 신부라면 신랑이 온다는 편지를 받은 날부터는

하루가 억삼추(如三秋) 같이 가나
리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마고 이 성경 말씀에 취지
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를 받은 조선의 교회들은 어찌
하고 있나요? 어찌하여 오시겠다
는 반가운 소식,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무감각하
게 있는 것입니까?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
기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한 연고
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긴 증거입니다. 오스날 그
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간음하였습니
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
고 있습니다. 간음한 신부를 데리
고 갈 신랑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
님은 이처럼 부정한 신자들 당신
의 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입니
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면 요한과 같이 “주 예수여 이서
오시옵소서” 화영하고 재촉하여야
하겠습니다 (제22:20). 그래야만
주님께서도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
려고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반드시 오실 것입니
다.

어떤 곳에 서로 사랑하는 한 부
부가 있었습니다. 남의 집의 이연

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이 서울에 올
라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남
편은 속히 내려가 남의 집에서 고
생하는 부인을 진저내어 같이 서울
에 가서 동락(同樂)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악마
와 세상과 싸우며 고생하는 당신
의 신부인 우리들을 고생에서 건
져내어 당신의 좋은 집으로 데려
가서 동락(同樂) 하시려고 속히 오
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자만과 남편이 서울에 가서 나
아주었다는 소식을 받은 부인과 같
으니 어찌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모로 내려갈 것까지 한 자
랑이 불하남을 만났습니다. 주를
전부 다 옷까지 다 빼고 가리 신채를
매달 맛타 상치에선 피가 흐릅니
다. 한 자마리아 처녀의 머리카
치를 벗고 주를 입혀 갈고 나리
에 태워 한 데려와 부인에게 건
내어주며 주인에게 내주어 주를
또 주셨으니 실 부탄안이다. 영
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의 영
이 후미하여 자기를 구한 자
구이며 자기장 누구의 집이 있
것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회복되어 정신이
아와서 주인에게 자세한 말을
자기가 어떠한 처지에서 어떤
작람에게 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인에게서 더 하고 자기를 구한
람에게 감사하며 그를 만나고 영

은 마음이 간절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들도 마귀에게 맞아 상처가 많이 나서 신음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여관)에 데리고 와서 앉혀 두었습니다. 처음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차차 죄의 상처가 나아졌을 때 자기를 구원한 이가 누구인 것을 목사님(여관주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감사하며 다시 돌아 올 때를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께서 오시면 어떠한 사람을 남신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까요? 물론 잠 신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씩 걸친 자는 안됩니다. 도적도 그 집에 들어가지 나려온 것(걸레, 누니, 헌신)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굶은, 보석, 진수같은 것, 값많고 가져가기 좋은 것만 가져 갑니다. 예수께서도 서분짜리도 못되는 신자, 걸레같은 신자, 헌신쩍같은 신자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만 데리고 가십니다(빌 2 : 5 요일 3 : 3) 일본 제철소에 가면 연, 수석, 동, 은 같은 여러 가지 철이 결합한 생식을 부순 후에 한 자석봉둥이를 넣어서 놀립니다. 자석을 내어보면 그 자석 쇠와 흡사한 쇠만 붙어있고, 다른 쇠는 다 떨어져고 붙지 않습니다. 우

리 인간도 상처 불원에 예수 봉둥이를 가지고 세상을 저울 때 나 떨어지나 예수님과 흡사한 사람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같이 고생한 자, 그와 같이 참은 자, 그와 같이 온유 겸손한 자, 그와 같이 십자가 진 자들은, 예수의 자석이 가까이 가면 모두 다 철컹철컹 올라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 하나님 알과 주님 알과, 천군 천사와 이만 성도들과 만국복성들이 한 곳에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신자 자리에 참여한 때, 지상에 떨어져 남은 자들은 마귀에게 개패뚫 맞고 딱치뚫 맞아서 죽을래야 죽지도 않고 고통과 슬픈 눈물과 이불 갈며 부르짖는 칠년대환난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님들이여, 수께서 오시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신 분은 감사하며 주의 새임을 재촉하며, 이 소식을 속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노아가 홍수전에 준비한 것같이 우리도 준비하여야 후일의 수치를 면할 것입니다. 아직 준비 못된 분은 어서 준비하여 그날의 고생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여 지옥에 들